

---

# “暴力”論에 관한 社會學的 考察

金 東 式

## 目 次

- I. 앞서서—“暴力”에 관한 社會學的 省察
- II. 暴力 理論들에 관한 批判
  - 가. 挫折—攻擊論과 地位不一致
  - 나. 生物学, 行動主義의 模型
  - 다. 精神分析學的 接近 혹은 Personality 論
  - 라. 學習理論 혹은 McLuhan의 命題
- III. 暫定的 맺음—暴力의 再理論化 要求

### I. 앞서서—“暴力”에 관한 社會學的 省察

社會的 關係의 이루어짐이 어떤 根本模型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는 社會科學者들의 오랜 論議와 對立의 對象이 되는 問題였다. 이 論議와 對立은 모두가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 障營—社會秩序가 모든 異見과 利害差를 넘어선 價值 合意, 自發的 合意 혹은 一般意志로서 이루어졌다는 見解

와 強制力과 拘束, 一部の 支配와 나머지의 服從으로서 이루어졌다는 見解—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으며, 이것이 社会科学者에게 갖는 重要性은 그 어느 模型을 따르느냐에 따라 研究方向, 方法論, 價值判斷, 理論과 實踐의 문제등에 深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價值合意의 社会体系論은 T. Parsons 를 봉우리로 한 構造機能論으로서 代表된다. 構造機能論, 그와 연관되는 經驗主義的 方法論에 관해서는 이제에는 兪한 批判과 反省이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단 한 가지, 그들의 模型과 関心이 “行爲의 規範의 性格”에 根拠하고 있다고 함이 사실상은 社会構造의 規範의 性格이 아닌 制度的 側面의 安定에<sup>1)</sup> 보다 脈絡이 닿는다는 Dahrendorf 의 批判만을 取하자(1959, p. 160).

이 점은 이제 우리의 論議를 展開해 나가는 데 중요한 관련이 있다. 共通된 價值와 制度的 整備의 普遍的 合意라는 社会的 統一性 속에는 反復의 過程만 있을 따름 葛藤, 暴力, 社会運動이란 語彙가 뜻하는 變動은 없거나, 있어도 病理的인 것으로 看做된다. 아니 그 語彙들 자체가 지니는 超越的·批判的 機能마저 陳述世界의 終焉이 뜻하는 一次元的 思维로 陷沒 變質되어 버린다 (Marcuse, 1964). 이 “이루어진 秩序”라는 制度的 安定 追求에는 “社会的으로 肯定的 特性을 지니는 葛藤”(Simmel, 1955, p. 14)이란 찾아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拘束力과 強制의 社会關係 模型 속에서 葛藤은 社会的 相互作用의 高揚에 이룰 수 있으며 병든 것은 變動現象이 아니라 變動의 対象이 되는 既存秩序이다.

우리는 이 兩 模型이 한 人間社会的 서로 다른 두 모습(Dahrendorf는 Janusheaded라 표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綜合 止揚의 이념이 企圖되고 있음도 알고 있다.<sup>2)</sup> 이제 우리는 이 模型에 대한 기다란 論議는 다루지 못한 채 “주어진 秩序”의 變動의 增進을 要求하는 行爲樣式을 省察해보자.

變動要求의 行爲樣式을 “暴力”이라는 語彙로 나타낼때 많은 주의와 검토가 따라야 한다. 우선 이 말은 外延보다 含意가 보다 否定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 “暴力”에 대한 否定的 含意의 강조는 그 語彙의 忌避 뿐 아니라 現象의 忌避에 까지 이르게 한다. 既存 体制은 變動이 가져올지도 모를 그들의 既得權의 喪失을 두려워하여 이에 挑戰하는 “暴力”에 대해서 道德的 破門(Wolfgang, 1966, p. 3)을 내린다. 이것은 “暴力”이 非適法的이며 모든 狀

1) 機能主義者들이 價值와 利害의 자기 다른 類型에 관한 다양한 統合결과를 추구하지 않고 “제도적 統合”만을 추구할 때 지니게 되는 “형식적 해석”의 危險性을 構造機能論을 擁護하면서 Merton도 言及하고 있다. (Merton, 1961, p. 44)

2) 다음의 論文들을 參照하라.

Berghe, Pierre L. van den: Dialectic and Functionalism: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SR, 28, Oct. 1963)

Friedrichs, R.W.: Dialectical sociology: toward a resolution of the current “Crisis” in Western Sociology (BJS, W. XXIII, No 3 Sept. 1972)

況아래 항상 破壞的이라는 偏見과 직결되며 暴力을 變動戰略의 意圖的 要素로서 從屬變數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暴力과 變動과의 關係는 暴力이 變動戰略의 從屬變數나 產物이라기보다 오히려 變動過程의 獨立變數 혹은 原因要素로서의 關係에 있다 (Hornstein 外, 1971, p. 442). “暴力이 非適法的 病理的이다”라는 손쉬운 規範的 批判은 많은 社會學者들이 이 문제를 등한시하게 한다. 이것은 社會學的 大衆化 (Gouldner, 1970.), 다른 말로 安定追求의 讀者가 社會學者에게 미치는 壓力 (Cosser, 1959, pp. 27~28) 등으로 지적되나 궁극적으로는 많은 경우가 그들의 研究方法로서의 模型에의 固着과 學問을 支配하는 官僚制에의 이데올로기의 代辯者 (Mills, 1961)가 意識的 혹은 無意識的으로 됨으로서일 것이다.<sup>3)</sup>

暴力이 “주어진 秩序”의 變換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은 “주어진 秩序”에 의해 저질러지는 強制力(force)과 区分되어야 한다. 흔히 混用되고 있는 이 점은 “주어진 秩序”에 의해 저질러지는 強制力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暴力”으로부터 分離해 낼때 보다 명확한 생각의 이 끝음이 가능하리라 믿어진다. 이 試論的 構想에 대해서는 이미 Sorel 이 이 두 語彙가 어떤 때는 權威의 行爲를 어떤 때는 反逆의 行爲를 얘기할 때 마구 쓰이고 있으며, 그러나 이 두 경우가 자기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안다면 小數가 支配하는 特定 社會秩序를 賦課하려는 것을 強制力(force), 그 秩序를 破壞하려는 것을 暴力으로 규정해야 하리라고 言及하고 있다 (Sorel, 1912, p. 195). 무릇 모든 強制力이 適法化되어야 하고 그것은 곧 制度化를 의미한다는 (Levy, Jr, 1952, pp. 469~470) 틀 속에서 適法化와 非適法化의 體系論과 관련된 語彙는 이로써 부분적으로나마 克服될 수 있다. 暴力이 既存秩序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暴力이 어떤 變動追求의 具體的 制度를 支持, 擁護함이 불가능하다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支持 擁護의 경우이더라도 이 暴力은 行政府 統制下의 어떤 기관과 탈바꿈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適法性을 要求하게 되는데 있다.

한편, 暴力을 非適法的 病理的으로 생각해 온 사람들 못지 않게 “物理的·個體的 攻擊”에 注意를 기울여 온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論議가 우리의 主題와 보다 관계깊다는 것을 알려줄 必要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物理的, 個體的”이라는 두 가지 修飾語는 앞서의 語彙 못지않게 “暴力”이란 單語를 摺約 制約시킨다. 우선 “個體的”이란 수식어가 따를 경우 “暴力”속에는 集合的 行爲가 사라진다. 그러나 暴力의 自己顯現的 內容 속에 集合的 行爲를 排除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論議의 뒷받침은 暴力을 否定的으로 얘기하면서 權力이 多數의 民衆에게 기반하는 데 反해 暴力은 연모에 依存함으로써 數의 制約을 벗어날 수 있다는 Arendt 의 지적에서도 출발점은 같지 않으나 가능해진다. (Arendt, 1969, p. 42). 變動을 追求하는 集合的 行

3) Martindale은 이것을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와 “전문화 (Professionalization)”로 표현하고 있다. (Martindale, 1970, p. 279).

動을 “社会運動”이라고 불러워진다. 많은 社会運動의 論議속에 逆으로 暴力이 包含될 수도 包含되지 않을 수도(흔히 “非暴力”이란 語彙로 규정되는) 있다<sup>4)</sup>고 말해지고 있으나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될 暴力-非暴力의 連続(Continuum)에서 본다면 역시 “社会運動”은 “暴力”의 下位概念이라 믿어진다.

“物理的 攻撃”으로 暴力을 規定함은 바로 暴力, 非暴力 区分을 가장 무난히 해결해 주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곧 精神的, 心理的 暴力이 物理的 暴力보다 더욱 激甚하고 激烈할 수 있다는 간단한 反證으로 무너져 버린다. 여기에서 Bondurant, Shap와 Roberts, 그리고 좀더 直說的인 表現으로서 Naess는 주로 “非暴力”이 道德的, 宗教的 信念体系에서 暴力을 忌避함이라고 단언한다. 이 定義들이 모호하고 矛盾된다는 점을 Hornstein 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Hornstein 外, 1971, pp. 534~536).

① 非暴力이 物理的 暴力과 精神的 暴力 모두로부터 忌避라 함은 Naess 만이 言及하고 있고<sup>5)</sup> Bondurant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직 物理的 暴力만을 言及할 뿐 보다 捕捉하기 어려운 “정신적 테러(psychic terror)”를 다루고 있지 않다.

② “非暴力의 定義를 變動 主体의 行動과만 연결시키는 것은 規範의 임에 불과하고 事實상에 있어 어떤 한 사람의 暴力이 다른 사람에게는 非暴力이 된다. 예를 들어 문 앞에 連坐한 示威群衆을 생각해 보라. 여기에 보다 문제를 複雜하게 만드는 것은 非暴力的 行爲의 認知가 그 現象속의 그의 役割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리라 점이다. 말하자면 그가 變動의 主体인가 犧牲者인가 혹은 구경꾼인가 非暴力에 대한 歷史的 學者인가에 따라 그 行爲의 適法性, 成功까지를 包含해 評價가 달라질 수 있다.

③ 非暴力”이 變動主体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成功的 變動을 위한 하나의 戰略인가 아니면 “非暴力”의 사용을 말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규제하는 하나의 生活樣式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Gandhi를 包含한 많은 사람들이 “非暴力”이 個人的 혹은 宗教的 價值体系의 統一的 要素로서 戰略과 戰術은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고 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은 變動을 위한 순수한 戰略의 利益을 위한 戰術의 選擇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 各 接近은 “良心的的(conscientious)” 非暴力과 “實用的(pragmatic)” 非暴力으로 나누어져 뒤섞여지고 있다.

위와 같은 지적은 暴力과 非暴力이 絶對的 区分 基準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뜻하며 오히려 하나의 範疇속에서 連續性을 지님으로 把握되어야 하리라 믿어진다.

이제껏 몇가지 論議를 거쳐 “暴力”이 “非適法的, 病理的”이라는 생각은 安定的 追求와 “個

4) 예를 들어 P. Wilkinson의 논의 (Wilkinson, 1971, p. 27)

5) 이것은 그야말로 暴力과 非暴力의 區別이 必要하지 않다. 이때 非暴力이 의미함은 暴力이 없음이지, 결코 非暴力의 行動類型(定義의 문제를 행동유형으로 매치시키는 것은 暴力의 경우에도 나타난다)이 의미하는 變換 주체와 대상간의 權力關係 變動이 目的이 안되기 때문이다.

体的, 物理的”이라는 생각 또한 이와 연관된 概念的 制約과 掘折로 이끌어 가는 概念的 誤用이라는 사실을 살펴 보았다. 이제 우리는 “暴力”을 자연스러운 社会的 現象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취하게 되는 여러가지 잘못된 理論들을 살펴보자.

## II. 暴力 理論들에 관한 批判

暴力을 論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暴力理論을 接하게 될 때 발견하는 것은 그 많은 暴力理論 個個의 혹은 서로서로의 內的 論理의 非一貫性이다. 이 理由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I章에서 지적된 模型의 問題와 偏見의 까닭이 가장 클 것이다. Horstein 등은 이 많은 理論들속에 主要 모음으로 範疇化하고 있는데(Horstein外, 1971, p. 444) 이것은 꽤 타당하다고 볼수 있다.

- ① 個人內的 影響—퍼스넬리티와 社会化와 연관된 것과 함께, 生物学的 說明
- ② 社会構造의 影響—暴力으로 이끄는 社会構造속의 經濟的 政治的 要素의 結果
- ③ 文化的 影響—특히 社会階級
- ④ 社会心理学的 影響—權力, 逸脫과 個人間 혹은 集團間的 葛藤의 結果

한편, J.E. Dougherty 와 R.L. Pfaltzgraff, Jr.는 그 기원을 人間性에 두는가 制度에 두는가에 따라 “微視的”, “巨視的” 理論으로 나누어 葛藤現象을 分類하고 있다(J.E. Dougherty & R.L. Pfaltzgraff, Jr., 1971, chap. 5, 7, 8.).

분명히 이와 같은 範疇속에는 暴力에 관한 현재까지의 많은 理論들을 配列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範疇化와 理論들의 核心은 하마디로 “暴力人(violent men)” (Toch, 1969)을 假定하는가 않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타고 난 攻撃性向이든 社会化에서 暴力의 下位文化를 습득했든 이러한 주장은 “暴力人”을 假定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나중에 論議하게 될 Gerth 와 Mills가 비판하는 生物学, 行動主義의 模型과 연관된다. “暴力人”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때야 왜 어떤 條件 아래서 暴力이 發生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社会学的 眺望아래 이 문제에 接近하기 위해 이 “暴力人”의 가정을 뺄어뜨려야 할 것이다. 다음의 論議는 이와 같은 그릇된 가정을 前提로 한 暴力에 관한 理論들이 不適當을 論證하려 한 것이다.

### 가. 挫折 - 攻擊論과 地位不一致

挫折-攻擊論은 行動科学的 伝統에서 오늘날 가장 普遍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暴力은 항상 挫折의 結果”라는 心理学的 假定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理論속의 基本概念들에

는豫見되는反應의先行條件인衝動因(instigator), 그리고衝動因의複合이 뜻할 수 있는衝動의強度,豫見된연쇄의終了行爲를 뜻하는目的反應(a goal response)이 포함된다. 그리고行動의연쇄속에서“衝動化된目的反應(an instigated goal-response)”이그적절한시간에일어남이중단됨이“挫折”,衝動의強度를어느정도줄여서目的反應이變換됨이“代理反應(a substitute response)”,그目的反應이指向하는바의對象人에게毀傷을주는行動을“攻擊”이라고부른다. 이基本概念들로 엮어진挫折-攻擊理論의최초의모노그래프(1939年)는다음과같이要約된다(Dollad外, Megargee & Hokanson, 1970, pp. 22~28).

○ 心理學的 原則(I)

- (1) 攻擊衝動의強度는挫折程度와比例한다. 挫折程度의變化는 ①挫折反應에의衝動強度, ②挫折反應의해방정도, ③“挫折된反應연쇄의數”라는세가지要因의기능에서비롯된다.
- (2) 어떤攻擊行爲의금지는데그行爲表現에기대되는처벌의強度와比例한다. 처벌은아끼던毀傷을중과고통을일으키는상황,衝動化된행위를할수없음을포함한다.
- (3)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얘기될수있다. 挫折強度가일정하다면주어진攻擊行爲에대한처벌기대가클수록그行爲는더발생하기힘들다. 그리고두번째로처벌기대가일정하다면挫折強度가클수록攻擊은보다일어나기쉽다.

○ 心理學的 原則(II)

- (1) 挫折에 의해 일어나는 가장 격심한衝動은 그挫折의原因으로 생각되는對象에 대한攻擊行爲이고 이것은 점차적衝動의弱화는 점차적으로 덜直接的인 공격행위로 나타난다.
- (2) 直接的攻擊行爲를증거시킴은이금지의原因요인에 대한 공격을충동하는附加的挫折이되고 다른形態의攻擊衝動을增加시킨다.<sup>6)</sup> 따라서금지된攻擊은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거나變形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경향이 있다. 社會적으로 받아들여지는變形이“昇華”라 불리운다.
- (3) 自身の 처벌이 반드시 따름으로 말미암아自身에 대한攻擊은 상당량의 금지를 무릅써야 하고 따라서表現의 다른 유형이 보다 엄격히 금지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기 쉽다. 만약 여러 가지攻擊行爲에 대한 금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하다고 여겨진다면 個個人的原初的挫折에外部要因보다 스스로에責任이 있다고 믿을 때와直接的攻擊이外部要因보다 오히려 스스로에 의해서 규제될 때 모두自身에 대한攻擊傾向은增大된다.
- (4) 어떤攻擊行爲의表現도 모든 다른攻擊行爲에의衝動을減少시키는 카타르시스다. 이것과 옮겨감(displacement)의原則으로부터原初的挫折水準이 일정할 경우 여러 가지攻擊類型表現간에는逆比例關係가 있음을導出할 수 있다.

6) 過去 혹은 同時의挫折들의 나머지衝動(residual instigation)의 정도를 가리킨다.

(5) 카타르시스와 읍아감의 현상은 하나의 機能的 統一體로서 이제까지의 理論構成에 適合한 反應樣態에만 攻撃이라는 이름붙임이 가능할 것이다.<sup>7)</sup>

이 理論이 “暴力”의 社會的 性格에 着점을 맞추면서 좀 더 洗鍊化되어 많은 社會科學者들의 關心을 모으게 된 것은 “地位不一致”가 가져오는 相對的 失調(relative deprivation), 挫折과 연관되면서부터다. “地位”概念은 Weber가 社會階級을 세 次元으로 나눔의 하나로 사용한 이래 (Weber, Bendix & Lipset 編, 1970, pp. 21~28) “地位一致” 혹은 “地位不一致”의 여러 語彙로<sup>8)</sup> 불리워졌으나 요컨대 다음과 같은 Bendix-Smullyan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것들이다.

地位가 “共通된 社會的 特性의 所有가 연관된 上下尺度에 位置함”이라고 하고 다시 이 階級 尺度가 Weber의 階級, 政黨, 威勢에 따라 經濟的, 政治的, 威勢의 地位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特定人의 이 세 地位간의 위치함이 다른 것을 “地位不一致”라고 말한다. (Bendix-Smullyan, 1944, pp. 151~161). 分配의 體系를 權力과 特權에서 보면서 새로운 階層理論의 綜合을 試圖하고 있는 Lenski는 權力과 特權이 不平等한 配分이 가져오는 地位不一致에 人間은 必要하다면 他人을 犧牲하고서라도 그의 滿足을 최대한으로 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그는 不一致된 地位와 序列(ranks)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最低로 평가하려 하나 既得權을 全 상대방은 이것을 最低로 評價하려 하고 이것이 當者에게 緊張感(Stress)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 결과 보답받지 못하는 一次集團의 境界外에서 社會的 相互作用을 발견하려 하며 現存 社會秩序와 政治體系를 否定할 때 重要性을 갖게 된다고 한다 (Lenski, 1966, pp. 86~88). 그러나 地位不一致와 政治的 態度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서로 矛盾된 研究結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sup>9)</sup> 우리는 여기서 經驗의 難點은 접어두고 “地位不一致”模型과 연관된 理論的 問題를 살펴봄으로써 이 接近方法을 檢討해보자. 우선 이 模型속에 뚜렷이 보이는 것은 人間行動의 心理學的 說明과 社會에 대한 合意 혹은 均衡에의 先入感이다. 地位不一致와 그와 연관된 暴力의 說明에 관한 대부분의 文獻이 動機化된 行動을 地位不一致에서 비롯된 主觀的 心理狀態( 例를 들어 緊張, 애매모호, 不安定한 自我像)의 結果로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不一致, 緊張과 社會的 行動사이에는 아직 直接的 關係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 因果律속에 介入되는 緊張變數에 대한 論證이 同語反復

7) 다시 말해서 假定化된 機能的 統一體가 綿密한 검토에서 깨어져 있을 때 “공격이란” 語彙사용은 變形되거나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8) Status equilibration (E. Bendix - Smullyan)  
Status congruency (S. Adams)  
Status crystallization (G. E. Lenski)  
Status consistency (I. W. Goffman, E. F. Jackson)

9) 여기에 관해서는 자세히 論議할 必要가 없다고 여긴다. Rush와 Denisoff가 編한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의 pp. 78~79에는 이 例證을 여러 학자를 들어 간략히 보여 준다.

인 狀態다 (Gerth & Mills, 1970, p. 8., Rush & Denisoff, 1971, p. 79). 다시 말해서 그 論證이 從統的인 行動變數로부터 推論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직 檢證되지 않은 많은 要因이 各기 相異한 條件들 아래 不一致에 대한 反應을 決定하기끔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어떤 한 개인이 그 자신을 어떤 準拋集團에 志向하는가 또 어떤 地位에 着점을 두는가에 따라 地位의 間隙을 느끼는지 않는지 相異한 反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反論 外에도 個個別 行為者의 主觀的 狀態에 대한 強調는 動機化된 行動이 具體的 社會背景(예를 들어 階級, 利益集團)속에서 客觀的인 社會的 要因들의 結果라는 점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 점은 보다 확충되어 地位不一致論을 政治的 變動과 연관해서 說明함이 時間的, 空間的으로 文化的 制約性(미국에서만 적용가능한)을 갖는다고도 지적된다 (Davies, 1970, p. 79).

地位不一致論을 다룬 대부분의 經驗的 研究속의 하나의 명백한 假定은 단지 地位不一致만이 社會的 行動에 꾸준히 影響을 미친다는 점이다 (Rush & Denisoff, 1971, p. 79). 이렇게 되면 萬事의 自然的 狀態는 地位一致일 것이고 그 狀態는 곧 모든 活動이 나타남을 그만둔다. 이것은 나아가서 어떤 上昇移動이든, 行為에의 動機化든 變動欲求든 모든 社會的 行為가 地位變數間의 一致를 위함이 된다. 여기서 地位不一致現象이란 실형 움직임(Boskoff는 "movement"나 "achievement"라 표현한다)이더라도 그 階層에 적절한 生活樣式의 習得을 실패한 것이다 (Boskoff, 1972, p. 163). 따라서 Boskoff에게 地位不一致된 사람들이란 變動이 없는 運動(movement)을, 認知하지 못한 成就(achievement)를, 均衡잡힌 만족없는 結果를 겪는다. 이렇게 해서 地位不一致論의 假定은 모든 사람들이 意識의이거나 無意識의이거나 나아가려 하는 均衡의 規範的 狀態를 뜻하게 된다.

이 "均衡體"라는 생각이야말로 社會學的 保守的 이데올로기를 오랫동안 뒷받침해 온 社會學的 機能論의 중심되는 觀念이다. 이와 같은 制約된 觀點에서 떠나 地位不一致의 欠如를 社會의 普遍的이고 現存的인 條件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立場이야말로 急激한 社會變動의 特性을 보여주는 社會에는 보다 適切할 것이다.

Rohter의 論文은 이와 관련된 研究의 하나의 例證이 될 것이다. 그는 右翼이 되는 者들은 地位挫折에서이며 이것을 보상할 情緒의 一體感和 진정한 影響을 주는 社會的 政治的 行為에 뛰어들으로써 그들의 不安과 不滿의 挫折을 表出한다고 한다. 그는 地位挫折을 겪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範疇로 나누고 있다 (Rohter, Rush & Denisoff 編, 1971, pp. 124~135).

첫째, 下降者들(The Decliners)—産業發達과 더불어 斜陽族들로서 過去의 下流階級이 上昇할수록 拒否意識이 팽배한다.

둘째, 새로운 上昇者들(The New Arrivals)—신출내기들이 성공을 거두는 시간과 이미 도달한 사람들이 그들 동등하게 받아들일 때까지의 時差(lag)에서 發生하는 地位挫折로서 이들

은 富裕한 既存層의 리버럴한 理念과 보헤미안적 態度와 非道德性을 준열히 꾸짖는 武器로서 急進的 右翼에 선다.

세계, 價值保持者들(The value keepers)—社會의 既存價值秩序가 崩壞되거나 挑戰받고, 나아가서 政治的 經濟的 權力的 優勢가 白人居住의 시골에서 小數人種의 結合인 大都市로 移行될 때 信念과 行動이 이어져 온 遺産의 斷切에서 느끼는 挫折로서 이것은 相對的 喪失보다 따들림받았다는 主觀的 喪失感으로 연결된다.

Rohter의 이와 같은 論議는 결국 地位挫折을 모든 集團에까지 適用한 셈이 된다. 즉 上昇移動(The New Arrivals)과 非移動(The Value Keepers), 下降移動(The Decliners) 모든 경우에 그 결과로 地位挫折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右翼과 挫折되지 않은 非右翼은 移動次元에서는 區別 안된다고 批判된다(Rush & Denisoff, 1971, p.135). 이것은 또 變動하는 世界속의 停滯란 결국 下降移動을 의미한다면 그는 두 가지, 上昇과 下降만을 다룬 셈이다. 한 個人이 移動의 결과로 地位挫折을 겪게 되고 그릇된 地位를 占하게 된다면 이제 理論적으로 重要한 것은 그가 어떻게 그 狀態에 이르게 됐는가 함이다. 틀림없이 그의 世界觀은 그의 移動向方에 따라 바뀔 것이다.<sup>10)</sup>

이제까지 살펴 온 地位不一致와 挫折—攻擊에 관한 考察은 극히 未備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論議와 관련된 만큼만 취하였고 挫折이 暴力의 原因 곧 暴力感應性을 保障해 준다고는 할 수 없다는<sup>11)</sup> 점을 할 수 있겠다.

#### 나. 生物學, 行動主義의 模型

前節에서 우리는 挫折—攻擊理論의 假說만을 본 후 地位不一致가 暴力의 說明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挫折—攻擊의 假說들은 地位不一致라는 社會學的 眺望과 연결되기 이전 훨씬 앞서 모든 社會的 歷史的 現象을 個個人間的 마음 속으로 부더의 行爲와 연관시킨 Freud의 질은 影響을 받고 있다. 人間 本質을 狀況에 대하여 열린 것으로 보지 않고 普遍性속의 常數를 찾으려는 企圖은 心理學의 끈질긴 노력이다. 이 努力들은 18세기, 19세기 合理論的 心理學을 거쳐 “本能學派(The instinct school)”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Gerth와 Miiis는 行動主義가 人間의 이미지를 狀況과 연결시켜 說明하려 했다는 점에서 人間

- 
- 10) Rusk과 Denisoff는 여기에 덧붙여 명백한 地位不一致의 特定類型, 屬地位와 獲得地位와의 差, 獲得地位에 대한 相異한 序列지움등을 地位不一致 感應分析에 중요한 요소라 하고 있으나 論議와 關聯이 없다고 보고 약한다.
- 11) 오랜 挫折을 오히려 어떤 改革에로의 參與를 拋棄하는 無力感을 낳는다고 보고 Turner와 Killian은 여기서 짧은 挫折의 經驗을 사고 있다는 점을 參考로 附記하여 둔다. (Turner and Killian, 1957, p.432)

性の 探究에 視野를 넓혀 주었으나 대신 動機의 除去를 가져오고 이제는 逆으로 지나친 狀況에 압도되는 人間像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Gerth & Mills, 1970, preface). 여기서 두 사람은 社會心理學이 人間을 “特性的 集 (a set of traits)”으로서 아닌 “反射의 덩어리 (a bundle of reflexes)”로서 全体性を 지녔다고 보는 Freud 와 G. Mead 의 傳統과 그가 행하고 複合시키는 役割과 관련된 歷史的 被造物로서의 人間을 把握하려는 Marx 와 Weber 의 社會學的 傳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節에서 前者의 模型속에서만 설 때 다음과 같은 수 많은 暴力 說明의 當황함을 마주치게 된다.

### (1) 生物學的 理論 혹은 人性論

이 理論은 Freud 의 “죽음에 대한 本能(Thanatos)”論을 시츠로 (Freud, Mergee & Hokanson 編, 1970, pp. 10~21), R. Ardrey, D. Morris 등의 저작과 함께 K. Lorenz 가 “攻擊論” (Lorenz, Megaree & Hokanson 編, 1970, pp. 5~9)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攻擊行動과 有機體의 生存條件과를 연관시키는 論에서 출발한다. 모든 社會的 動物에는 그들과 같은 種의 成員을 죽이거나 상처입혀서는 안된다는 禁忌가 있다. 이런 禁忌가 없다면 어느 動物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人間에게 있어서는 다른 肉食動物과 같은 커다란 먹이를 잡을 타고 난 무기를 지니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서로의 殺傷을 막을 아무런 安全裝置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人間에게는 攻擊者에 대한 慰撫와 服從의 표시 등으로 동정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갑작스러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言語能力과 思惟力으로 이룩한 進化의 世界에서 人間이 만든 武器가 可恐스럽게 暗黙의 으로 받아들여지고 社會的인 禁忌를 하루 아침에 破壞할 때까지 同種의 殺傷을 막는 禁忌의 매카니즘에 대한 아무런 壓力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로소 殺傷에 대한 道德的 責務와 기꺼워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漸增되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殺傷에 대해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는 免罪意識도 자라왔다. 같은 種內의 이와 같은 競爭은 그 種外의 環境과 관계없이 選擇의 壓力을 가져오는 非適應의 結果를 招來한다. 人間은 武器나 연모에 의해 種外의 環境에 어느 정도 対応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의 段階로서 바로 이웃하는 集團과 相衝하게 되고 이것이 進化의 必須要件이었다.

만약 이와 같은 Lorenz 의 見解가 옳다면 “本能”에서 비롯되는 이 暴力은 人間에게 宿命的인 該當의 社會構造와는 연관이 없다.

自明하게 Lorenz 는 暴力의 解決策은 스포츠와 無害한 競爭의 活動에 人間들을 參與시킴으로써 그들의 攻擊衝動을 發散시키라고 한다. Lorenz 를 비롯한 人性論 혹은 生物學的 接近에는 주로 下等動物로부터의 지나친 一般化란 점과 人間의 學習能力의 拒否란 점이 비판되고 있으나 여기서 우리는 生物學的 模型에서 “本能” 假定 自体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sup>12)</sup>

12) 緊張 變數에 대한 論證이 同語反復이란 말 參照 (가).

“本能”이란 말은 그 模型속에서 ① 行為의 原因 ② 行為의 目標 ③ 行為 그 自体를 모두 가리킴으로써 人間의 生物學的 特性은 수 千년간 變함이 없었더라도 行為와 느낌의 變化를 說明해 주지 못한다(Gerth & Mills, 1970, pp. 7~9). 이와 같은 結果는 Nieburg가 이 接近은 “理論이 아니라 自己滿足, 無爲와 敗北主義의 한 이데올로기”란 痛駁을 낳았다(Nieburg, 1970, pp. 36~39).

(2) 群衆行爲 혹은 릴라프(riff-raff)理論

集體的 暴力은 “群衆의 精神의 結合法則(law of mental unity of crowds)”에 支配되어 이 속에 原始的, 非合理的 要素가 나타나게 된다는 Le Bon의 생각은 大衆社會論, 心理學, 社會心理學에 많은 影響을 남겼다.<sup>13)</sup> Le Bon은 群衆이 “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지니는 퍼스낼리티의 사라짐(disappearance of conscious personality)”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群衆속에서 일으키는 變化를 다음과 같이 否定的 모습으로 말한다(Milgram & Toch, Lindzey & Aronson編, pp. 542~545). 첫째, 群衆은 모든 參與者들에게 劇的인 平準化를 感與한다. 둘째, 群衆은 그것을 構成한 個個人보다 知的으로 劣等하며 退行的 精神의 屬性을 나타낸다. 셋째, 平常人으로서의 獨立된 個個人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暴力의 行爲를 저지할 수 있다. 넷째, 誇張된 感情主義(emotionalism)가 작용한다. 이렇게 群衆은 情緒의 相互作用에는 오는 興奮感의 加重, 匿名性에서 오는 無責任感, 禁制의 緩和에서 오는 統制力의 欠如, 被暗示性에 따른 無批判的 志向, 多數의 힘을 믿는 數的 安堵感 등”(高, 1973, p. 113)의 心理的 매카니즘에 구속된다.

이 論議는 Hofstatter, Merton, Turner와 Killian 등에게 다음과 같은 要指의 批判을 받는다(여기서는 Milgram과 Toch의 要約을 따른다). 첫째, Le Bon의 叙述樣式은 非体系的이며 猛烈한 直觀에 依存하고 있다. 둘째, 獨立된 個個人에게도 非合理性和 愚鈍性이 있다.(Hofstätter). 셋째, 概念区分이 不分明하므로써 群衆의 가장 극단적 形態인 好戰的 暴徒(hostile mob)를 모델로 택하고 있다. 넷째, 그의 時代의 偏見을 反映하여 政治的 保守派로서 大衆에 恐怖를 지니고 있다. 다섯째, 소위 “集合心性(Collective mind)”은 科學的 分析에 反對된다. 여섯째, 그의 一般化는 逸話的 非体系的 証拠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Milgram과 Toch는 群衆의 暴力이 다른 集團의 暴力보다 더 激烈하다는 批判이 不可能하다고 말하고 個人에서 群衆으로의 轉換이 가져 올 수 있는 成員同質性優先의 理論이 있음을 상기시

13) 그는 群衆에게 두 가지로 接近하여 모든 時代의 特徵的 大衆性向을 論한 大衆社會批判 目的은 Ortega Y Gasset, Fromm, Lederer, Arendt가 各 方向으로, 相對的으로 制限된 集合體로서의 把握인 心理學과 社會心理學의 概念에 가까운 McDougall, Freud, Park & Burgess, Blumer, Turner & Killian이 발전시켰다고 Milgram과 Toch는 분석한다.

켜 준다.

한편 集合行為로서의 暴力에 非合理的, 原始的 要素를 강조한 것이 群衆論이라면 集合性에 관계없이 暴力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 잃을 것도 없는 下層民들로서 일종의 자발적 유희(Contagion)으로 건잡을 수 없는 실수와 惡을 저지르면서 소용돌이처럼 上昇된다는 主張이 릴라프理論이다. 이 理論은 주로 人種暴力과 관련하여 暴力에 參加하는 黑人人口가 黑人の 극히 적은 부분, 그것도 黑人共同體의 代表가 아니라 失業者, 犯罪者, 外部煽動家로 이루어진 며들이 (riff-raffs)이며 大多數 黑人은 이에 反對했고 慨嘆했다고 주장된다(Fogelson & Hill, Nieburg 에서 재인용, 1969, pp. 19~21). 그러나 이 세가지의 假定은 모든 研究가 한결같이 否定하고 있으며<sup>14)</sup> 무엇보다도 많은 既存秩序의 上位者에게 이 理論이 먹혀 들어 갔다는 점을 注意해야겠다.

#### 다. 精神分析學的 接近 혹은 Personality 論

Freud의 暴力에 대한 精神分析學은 여러가지 갈래를 지니고 발전되어 나가 앞선 論議의 대부분은 直接 間接으로 影響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集合行動에 대한 精神分析의 見解와 그와 관련된 特定の 育兒方式이 낳는 特別한 personality의 소유자가 暴力과 關係를 맺는다는 論議를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하자.

Freud와 Martin에게는 群衆이란 “리비도의 紐帶(libidinal ties)”로 이어진 것이다 (Milgram & Toch, Lindzey & Aronson 編, pp. 546~548). 여기에는 리더가 “集團心性”의 形成에 決定的 役割을 하고 다른 成員들은 그들의 “超自我(Super-ego)”를 포기하고 리더에게 사랑을 구한다. 이 리더와의 關係外, 各 成員들 사이에는 리더를 理想으로 共有하는 一體感이 이루어지고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連帶感이란 사랑으로 代置된다. 이렇게 해서 리더에게 超自我를 내맡긴 個個人은 어떠한 暴力의 사용에도 자유롭다. 한편 Adorno, Hoffer 등은 暴力을 支持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퍼스넬리티의 構造가 거기에 影響받기 쉽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sup>15)</sup>

Adorno의 “權威主義的 性格”은 極友와 관련된 것으로 파시즘에 影響받기 쉬운 퍼스넬리티

14) Nieburg의 冊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調査를 例証하고 있고, 林燦燾教授의 論文에도 反証을 보여준다. (林燦燾, 1971, pp. 5~12)

15) 여기서는 Rush와 Denisoff의 分析에 따르기로 하자(pp. 156~157)

를 여섯 가지<sup>16)</sup>로 나눈다.

Hoffer의 “진실한 信念家들(true believers)”은 大衆運動이 한 社会運動에서 다른 社会運動으로 옮겨가는 欲求로 채워진 狂人들을 말한다. 그들에게는 소중한 自我를 더욱 견고하게 힘이 아닌 버리고 싶은 自我의 熱情만이 있어 새로운 自尊과 價值獲得機會로서 社会運動에 参与한다. 따라서 이들은 “原因”이 없는 잃어버린 人間들이다.

이와 같은 리더, 퍼스넬리티의 説明은 여러가지로 適切하지 못한다고 비판된다. Freud의 “리더”는 넓은 의미로 쓰이긴 하나 많은 事例에서 리더십이 不在함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그 暴力이 오랜 不滿의 자발적 표현임을 나타내 준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信念家”의 暴力에의 移轉은 心理学的 要因보다 歷史의 外部效果나 이메올로기의 影響이 더 크다. 나아가서 暴力의 퍼스넬리티의 論議를 特定階級과 결부시키는 것은 어느 特定階級이 政治적으로 疎外되어 있고 沈滯되어 있음은 인정하더라도 전혀 不当하다.

#### 라. 學習理論 혹은 McLuhan의 命題

Gerth와 Mills의 첫번째 模型에서 우리가 살펴 볼 마지막 論議는 暴力이 文化伝達에 의해 學習된다는 주장이다. 이 理論의 体系的 展開는 Show와 Mckay에 의한 시카고를 중심한 生態学的 都市環境에서 非行少年들의 逸脱行爲에 관한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Sutherland의 分化的 接觸理論(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 더욱 세련화되며 暴力의 下位文化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理論이 이 속에 包含될 수 있다.<sup>17)</sup>

Sutherland의 理論속에 集約된 命題는 요컨대 다음과 같다. 첫째, 犯罪行爲은 주로 親密한 少集團에서 他人과의 커뮤니케이션(映畵나 新聞)은 犯罪發生에 별로 重要한 役割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示唆해 준다. 둘째, 犯罪活動을 배우는 경우 그 內容은 테크닉, 特定方向의 動機, 衝動, 合理化, 態度 등을 包含하고 있다. 셋째, 動機, 衝動의 特殊方向은 法規範에 대한 肯定的 혹

- 16) ① 그들의 근경을 기성의 공식과 편견을 받아 틀림으로써 합리화를 제거하는 The surface resentment stereotype  
 ② 한 語彙의 特定한 의미를, 사실 자체를 무시함 없이 그대로 편견화하여 수용하는 The conventionalist  
 ③ 복종과 피지배에서 안락을 구하는 The authoritarian  
 ④ 非社会的 破壞衝動을 지닌 The rebel and the psychopath  
 ⑤ 소외되고 따라서 “眞實原則”에서 除去된 The crank  
 ⑥ rigid notion이 수단이라기 보다 목적이 되고 세계가 조작가능으로 나누어지는 The manipulator
- 17) 文化伝達理論에 대해서 이 論文에서 參考로 한 것은 Sutherland의 “Differential Association” Show와 Mckay의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의 抄録(Wolfgang 外編 1970, pp. 208 ~ 210, 225 ~ 246)과 李璋鉉 教授論文(李, 1968, pp. 1 ~ 17)  
 下位文化論에 대해서는 Wolfgang & Ferracuti, The Subculture of violence, Wolfgang 外編, 1970. pp. 380 ~ 392.

은 否定的 定義가 肯定的 定義를 凌駕한 경우 犯罪人이 된다. 따라서 非犯罪的 行動과의 接觸과 犯罪的 行動과의 接觸사이에는 그 頻度, 期間, 上位, 強度에서 다르다. 여섯째, 犯罪的, 非犯罪的 類型과 接觸함으로써 犯罪的 行動을 學習하는 過程은 다른 學習에 包含되는 모든 메카니즘이 舍入된다. 逆으로 이것은 犯罪行爲의 學習이 模倣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일곱째, 비록 犯罪行爲이 一般的 欲求와 價値의 表現이므로 그러한 一般的 欲求와 價値로 설명될 수 없다. 한편 暴力이 下位文化로서 傳達된다고 보다는 “電波媒體가 가져온 變換된 社會와 人間間의 接觸에 賦與된 새로운 直接性으로 말미암아 人間意識의 격렬한 革命에 비롯된다”고 볼이 McLuhan의 立場이다(Nieburg, 1970, pp. 26 ~ 35). 이 미디어 중 특히 TV는 주의집중, 극화, 노출欲求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속크가치를 최대한으로 한다. 이 속에서 受信者들은 犯罪의 事實만을 받아 들이고 나머지는 體制維持를 위한 幻想과 거짓으로 귀에 흘려 버린다.

犯罪論의 模型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暴力”에 接近할 때 지니는 限界性은 금방 알 수 있다. 學習理論속에서는 非行의 下位文化가 왜 存在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고 McLuhan의 命題는 그 影響에 支配된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는 暴力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說明해 주지 못한다.

### Ⅲ. 暫定的 맺음 - 暴力의 再理論化 要求

이제까지 다루어 온 짧은 글을 대개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겠다.

첫째, 우리가 “暴力”을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既存秩序에 의하여 行使되는 것인가 또는 既存秩序 變換을 목표로 하는가에 따라 嚴密한 概念 適用의 구분이 있어야겠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後者の 現상에만 국한하여 이 語彙를 적용할 것을 試驗的으로 提案한다. 이와 같은 개념 적용이 혼동된데서 우리는 그 現象이 非合理的 病理的 혹은 항상 ‘피를 흘리는 行爲’라는 偏見과 先入感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 偏見과 先入感은 곧 바로, 그것을 生物学에서 벌어오든 行動主義에서 벌어오든 인간이란 暴力에 물들기 쉽다거나 그들의 下位文化 속에서 暴力을 習得한다는 “暴力人”의 假定과 直結된다. 이 그릇된 假定에서의 출발은 우리가 II. 에서 살펴 본 많은 취약한 理論들의 前提가 되는 것이다.

셋째, 이 ‘暴力’에 대한 偏見과 “暴力人”의 假定은 그 語彙의 舍意가 뜻하는 變動을 기피하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며 意識的, 無意識的으로 操作되어 왔다. 이것은 “주어진 秩序”를 批判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舍意의 體系만을 前提하는 社會學的 機能論의 模型과 관계가 깊다.

요컨대 이상의 한정되고 불충분한 論議의 의도는 暴力이 분명히 다른 모든 것과 같은 人間의 行為樣式임에도 불구하고 社会学이 그 “사실을 利害로부터 分離해내는 知性和 勇氣” (Horowitz 編, 1964, p. 30)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다. 이 暴力과 葛藤에 대한 理論的 省察과 研究의 要請은 반드시 急進主義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社会学의 문제가 부딪치는 道德的 딜레마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굳이 病理學的 설명을 빌린다면 病源을 否認하고 겉으로 드러난 傷處만을 볼 수 밖에 없다면 이것은 그 患者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둔 셈이다. 社会学者에게 있어 이 문제는 곧 그가 그 환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게 된다.<sup>18)</sup> 무엇이 根源的 問題인가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성찰을 지니는 問題意識은 올바른 의미의 社会学을 위하여 아무리 강조되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의 論議는 논리적 전개로 보아 그렇다면 과연 어떤 條件과 결부되어 暴力은 動機化 되는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더 깊은 追求가 있어야 하리라 믿어진다. 이 追求는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다른 기회에 밝혀져 하며 여기서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構想의 것임으로 끝이려 한다.

첫째, 우리는 이 暴力이 葛藤의 運在性속에서 特定한 社会的 條件과 결부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 특정한 사회적 조건은 社会学의 古典的 概念인 “아노미(Anomie)”와 “疎外”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特定한 社会的 條件 자체만으로는 暴力의 動機化가 설명되지 않는다. “주어진 秩序” 變換의 企圖에는 그 標的하는 바의 体系화된 理念이 바탕을 이룬다.

18) Dahrendorf의 理論과 實踐의 문제를 論하는 글을 참조하라 (Dahrendorf, 1970, pp. 256 ~ 278)

## 〈 参 考 文 献 〉

## \*는 論文

1. Arendt, H. :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9)
2. Bendix, R. & S. M. Lipset (ed.): Class, Status and Pow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0)
- 3.\* Benoit-Smullyan, E. : Status, Status Types and Status Interre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9, April 1944)
- 4.\* Berghe, P.L. van den : Dialectic and Functionalism: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8, Oct. 1963)
5. Boakoff, A. : The Mosaic of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Thomas Y. Crowell, 1972)
6. Coser, L. :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7. Dahrendorf, R. :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 Press, 1965)
8. Dahrendorf, R. :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9. Davies, L. : Social Mobility and Political Change (New York: Praeger, 1970)
10. Dougherty, J.E. & R.L. Pfaltzgraff: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J.B. Lippincott Company, 1971)
- 11.\* Friedrichs, R.W. : Dialectical Sociology: toward a resolution of the current 'crisis' in Western Sociolog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123, Sept. 1972)
12. Gerth, H. & C.W. Mills : Character and Social Struc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13. Hornstein, H.A. et al. (ed.) : Social Intervention: 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14. Horowitz, I.L. (ed) : The New Sociology: Essays in honor of C.W. Mill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4)
15. Lenski, G. :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McGraw-Hill, 1966)
16. Lindzey, G. & E. Aronson (ed) :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V (New York: Addison-Wesley, 1969)
17. Lipset, S.M. :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Anchor Books, 1963)
18. Marcuse, H. : One Dimensional M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8)
19. Martindale, D. : The Nature and Types of Sociologic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20. Megargee, E.I. & J.E. Hokanson (ed) : The Dynamics of Aggression (New York: Harper & Row, 1970)
21. Merton, R.K. :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22. Mills, C.W. :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Grove Press, 1961)
23. Nieburg, H.L. : Political Violence: The Behavioral Proces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9)
24. Parsons, T. : The Social System (New York: The Free Press, 1951)
25. Rush, G.B. & R.S. Denisoff (ed) :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New York: Meredith, 1971)
26. Simmel, G. (Trans. by Wolff, K.H. & Bendix, R.) : Conflict and the Web of Group-Affiliation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5)
27. Sorel, G. (Trans. by Hulme, T.E.) : Reflections on Violence (New York: B.W. Huebsch, 1912)
28. Toch, H. : Violent Men: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Violence (Chicago: Aldine, 1969)
29. Turner R. & L. Killian : Collec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7)
- 30.\* Wolfgang, M.E. : A Preface to Violence (The Annals, March 1966)
31. Wolfgang, M.E. et. al. (ed) : The Soci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0)
32. Wilkison, P. : Social Movement (London: Pall Mall Press, 1971)
33. Wolff, K.H. (ed) : Georgy Simmel, 1858-1918 (The Ohio State Press, 1959)

— Summary —

**Sociological Consideration on the Theories of ‘Violence’**

*Kim, Dong Sik*

In this study, we deal with ‘violence’ as a mode of human behavior to attempt to alter a ‘given’ order. And we demand to cleanse biases and prejudices that violence is always irrational or pathological. These biases and prejudices have been supported with assuming ‘Violent Men’, which means that they are biologically prone to do aggressive behavior in nature, or in behavioristic approach learned violence in the subculture of violence.

This assumption is held to be true, primarily by those who do not want any change in the given order. They are afraid that change in the connotation of violence might deprive them of any ‘vested intrests,’ so they argue social relations are composed of all of parts in consensus ‘in the equilibrated social system.’ But in conflict theory, social relations are composed of conflicting parts. Violence is the deepening of conflict in universal relations under a certain social condition.

For the purpose of this clarifying, of ‘Violence’—concep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theories of ‘violence’ and require to establish new theory-arrangement.

These discussion are oriented to a proposal that sociologists should not escape from the ‘reality.’